

尹대통령 '수능' 발언 파문...여권 '지원사격'

국민의힘 오늘 당정협의회...대책 논의 유승민 등 여권 일각에서도 대통령 비판 민주당 "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어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출제 및 사교육과 관련한 언급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교육위원들과 교육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방안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이, 당에서는 교육위원들이 각각 참석한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능을 언급한 것은 실

질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해 자동으로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지극히 당연한,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래 내일 교육부와 여당 교육위원들의 실무 당정이 잡혀 있었고 그동안에도 계속 의견을 교환해왔다"며 "공교육의 교육력 제고 방안, 사교육비 경감 방안 두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라 그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뜻

과 본질을 곡해하며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옹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뭘 잘 모르면 제발 가만히 있거라"고 하라"며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에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만 대환란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한 뒤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올해 수능 난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하루 뒤 "윤 대통령이 '공정한 변별력은 모든 시험의 본질'이므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논란이 됐다 철회된 '만 5세 입학'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의) 지시에 제대로 된 검토와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며 "평소 교육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 전반 문외한인 윤 대

통령은 복잡한 교육 문제를 캐도난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수능에 대해 뭘 안다고 앞뒤가 맞지도 않는 모순적인 얘기를 함부로 해서 교육 현장을 대환란에 빠뜨리나"라며 "대통령은 프랑스와 베트남의 유를 떠나기 전에 본인의 발언이 초래한 교육 현장의 혼란과 불안에 대해 반성하고 고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SNS에 "어제 자로 강남과 목동과 분당도 격전지가 됐다고 한다"며 충선을 앞두고 교육열이 높은 곳으로 유명한 서울 강남과 목동, 분당 등에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김진수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동료 의원·당원들이 지난 17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북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혁신기구 구성 금주 완료...인선·역할 주목

수장 김은경, 인선에 집중...혁신 대상 현역 의원 최소화 전망 기득권 타파 논의시 공천 영향...'李체제 혁신위 무용론' 여전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인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기구 구성을 마무리하고 혁신작업의 첫발을 땀 전망이다. 지난 15일 선임된 김 교수는 먼저 인적 구성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총 10명 내외 인원 중 절반 이상은 외부인이 되지 않겠나"라며 "혁신 대상이 될 수도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2-3명 내외로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혁신기구 수장에 선임됐던 이태경 바른미래당 명예이사장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이력이 밝혀져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이재명 친위대를 꾸린다'는 비판이 나왔던

만큼 현역 의원들 계파 안배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구성보다는 혁신기구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최대 관심사이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깜깜'이다. 이 대표가 혁신전권을 주겠다고 한 만큼 김은경 수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김은경은 혁신기구의 구체적 역할을 놓고 김교수와 별도의 소통이 없었다고 한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이뤄지는 이런 논의 자체가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 때문이다. 지난달 '쇄신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정치혁신 방안이 혁신기구 출범 명분이 된 만큼 우선은 이러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당대회 분투 의혹'과 탈당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등으로 치명상을 입은 당도 혁신을 어떻게 회복할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기구에서 현역 의원 기득권을 내려놓는 강력한 혁신안이 나온다면 내년 총선 공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이런 혁신안이 얼마나 동력을 받아 실행되는지다. 비명계는 혁신기구 구성과는 무관하게 여전히 이 대표 사퇴가 최고의 혁신이라며 거취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체제 아래에서 혁신기구 수장이 누구든 상관없고, 기대도 없다"며 "아무리 전권을 준다 해도 이 대표가 있는 한 그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파리서 부산엑스포 유치전

국제박람회기구 참석...차별화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이 19-24일 프랑스와 베트남을 잇따라 방문한다. 프랑스에서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한국의 특별한 준비 상황과 목표를 제시한다. 국민으로 방문하는 베트남에서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 사절단과 함께 외교·안보·경제·문화 등 분야의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17차

BIE 총회에 직접 참석해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이 기간 우리나라는 프레젠테이션(20일), 한국 주최 공식 리셉션(21일) 등의 행사에서 외국 대표단을 상대로 부산엑스포의 강점과 차별화된 비전 등을 제시하며 설득할 예정이다. 엑스포 유치 경쟁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 등이다. 개최지 확정은 오는 11월 말 정기총회에서 179개 BIE 회원국

투표로 이뤄진다.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20일에는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담을 포함해 지난 2개월 사이 G7 정상과 유럽연합(EU) 정상까지 모두 회담을 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을 마친 뒤 22일부터는 베트남을 국민 방문한다. 보 반 트영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쯙 공산당 서기장, 팜 민 쩐 총리, 브영 당 후에 국회의장 등 베트남 최고지도부와도 개별적으로 면담한다. /연합뉴스

이용빈 "광산구, 국토종주 자전거길 선정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은 18일 "전국 각 지역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140km가 조성되고 정비사업에 광주 광산구를 비롯한 영산강 자전거길이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7개 지자체를 선정해 신규 노선 8곳 발굴과 기존 노선 5곳 개선 작업을 추진한다. 신규 노선

은 현재 구축됐거나 조성 예정인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기존 노선과의 연계성,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광주 광산구 자전거길이 기존 노선 정비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억5천만원 지원받게 됐다. 이 의원은 민·관과 함께 광산구 자전거도로 실패 점검을 지속 진행하면서 도로 폭이 좁겨

나 시설 노후화, 표지판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해 자전거로 여의도-광주간 3박4일 국토를 종단하며 500km 자전거길을 탐사했다. 오산천 자전거길, 동진강 뚝방길 등 자전거길을 잘 조성한 지역을 탐방하고 탄소중립 자전거 메카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들을 모색해왔다. /김진수기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